

코로나19 위기 극복

“국가채무비율
감당 가능,
재정 여력도 충분해”

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



팬데믹 충격 완화 위해 각국 정부 적극적 개입

유럽·미국·일본 등
적극적 재정 투입

한국 정부, 추경 통해
재정지출 확대 노력

힘내라 우리국민, 힘내라 우리경제

긴급재난지원금

대한민국정부


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
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.
5월 4일부터 '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' 홈페이지에서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https://긴급재난지원금.kr/>

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

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
신용·체크카드

@NEWSIS



한국 국가채무비율* OECD 평균보다 낮아

* 한국 국가채무비율 40.1% <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 109.2%

채무 없는 건전한 재정
적극적 재정정책 가능

팬데믹 상황 맞아 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

충분한 재정 여력으로
미래 재정건전성 지켜야

명지대 경제학과
우석진 교수

정책브리핑 기고 요약

<국가채무 비율 감당 가능한 수준...재정 여력도 충분>